

평년보다 1°C 높은 올여름 바다, 역대 최대 장비 보급으로 어가 피해 막는다

- 해수부, 「2026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 수립
- 액화 산소 공급장치 등 고수온 장비 역대 최대(전년 대비 31%↑) 보급
- 재해 발생 시 치어 입식비에 생산비용을 추가하여 복구비 합리화 등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하 해수부)는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수온과 적조는 대표적인 여름철 어업재해다. 고수온은 수온이 28°C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양식생물의 서식 한계 온도를 벗어나 양식생물이 대량 폐사하는 재해이며, 적조는 양식장으로 유해 적조생물이 유입되어 어류가 질식으로 폐사하게 되는 재해다.

국립수산과학원 계절해양예측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여름 우리 바다 대부분의 해역 수온은 평년보다 1.0°C 이상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고수온 특보는 작년보다 이른 7월 초중순경, 적조 특보는 7월 말 이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해수부는 올해 고수온·적조로 인한 어업재해의 단계별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매년 여름 기후변화로 인해 어업재해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양식 산업의 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①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

고수온·적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시간 수온 관측망 연계를 확대(2025년 200개 → 2026년 210개)하여 보다 정확한 상황 판단을 지원한다. 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고수온 대응 장비 보급 예산은 전년 대비 31% 증액(2025년 58억 원 → 2026년 76억원)하여 양식장에 조기 지원하였으며, 현장 점검을 통해

대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또한,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수산물(조피볼락, 넙치, 전복 등)에 대해 사전에 수급·가격 동향을 제공하여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상생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 촉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② 신속한 재난 대응〉

고수온·적조 위기 대응 지침을 정비하고 위기경보 수준별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특보 발표 시 고수온 해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폐사가 우려되는 어류는 신속하게 방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긴급방류’ 제도도 운영한다.

〈③ 합리적 피해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

기후변화 등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이상재해 발생 시 그 손해를 차년도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하는 등 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 가입도 독려한다. 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의 경우 기존에는 치어 입식비만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생산비용(사료비, 유류비, 인건비 등)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어가가 아닌 경영체별로 지급하는 등 복구비 지원을 합리화하여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④ 기후변화 적응형 양식 산업 체질 개선〉

양식수산물을 좀 더 시원한 해역으로 이동시키는 ‘월하장(越夏場)도 남·서해 해역별로 운영한다. 또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품종 전환 시 종자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공모사업’도 시행하고, ‘기후변화 적응해역’ 제도를 도입하여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해역은 면허를 조정한다. 이와 함께 고수온 내성 품종을 개발하고 한계수온을 재설정하기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작년에는 지방정부와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응 덕분에 역대 최장기간(85일)의 고수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전년 대비 87% 저감하였다.”라며, “이번 여름철도 관계기관 및 어업인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51-773-5610)
		담당자	사무관	김 환 (051-773-5392)
			사무관	전영호 (051-773-5616)
			사무관	김지수 (051-773-5622)
			주무관	남정희 (051-773-5621)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책임자	과 장	한인성 (051-720-2210)
		담당자	연구관	황재동 (051-720-2230)
			연구사	주희태 (051-720-2234)
			연구사	임병준 (051-720-2231)
			연구사	김종규 (051-720-223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OPEN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